

우리 아이, 능통한 이중언어자로 키우기(3)



본 칼럼은 <영어패턴 500 플러스>의 저자인 이광수 선생님이 딸이자 공저자인 이수경 선생님에게 영어를 가르친 경험담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캐나다에 이민 갔을 때 영어를 전혀 못했던 이수경 선생님이 한국어와 영어 둘 다 능통한 이중언어자가 되기까지 영어 공부법을 담았습니다. 1회는 초등학교, 2회는 중학교, 3회는 고등학교 때의 경험담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글 이광수(<영어패턴 500 플러스> 저자, '올댓영어(cafenaver.com/allthatg)' 카페 운영)



글쓰기 실력을 한 단계 높이다

캐나다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년별 교과 과정에 맞춰 에세이를 포함한 다양한 글을 쓴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글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학교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학생들 중 대부분, 특히 중·고등학교 때 이민 온 학생들에게 글쓰기는 이곳 학교생활에서 넘어야 할 가장 큰 난관이다.

캐나다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표현하는 교육을 받는다.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음악 등 거의 모든 과목에서 교과서 위주의 딱딱한 공부에서 벗어나 콜라주(Collage)나 포스터, 팸플릿(Pamphlet) 만들기, 만화 그리기, 비디오로 연기하는 모습 짝이 같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받는다.

작문 과제도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갖춘 에세이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폭넓은 사고가 필요한 다양한 형식의 글을 쓰게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수업 시간에 배운 역사 속 인물이 됐다고 상상해 그 사람의 입장에서 편지를 쓰거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다. 영어 과목에서는 문학 작품 속 주인공이 되어 일기를 쓰거나, 작품 속 주인공의 인터뷰 기사를 쓰기도 하고, 시나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제를 내줄 때마다 대개 선생님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등을 적은 아웃라인(Outline)과, 채점 기준을 나열한 평가 기준표(Evaluation Rubric)를 같이 배포한다.

이런 과제를 하다 보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저절로 복습하게 되고, 인터넷이나 책 등을 이용해 필요한 자료를 찾으면서 연구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다. 또한 과제를 발표하는 능력도 향상된다. 캐나다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고 즐겁게 공부하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글쓰기 위주의 과제물들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수경이는 9학년(고교 1학년, 한국의 중학교 3학년에 해당)이 되자 에세이를 자주 써야 했다. 당시에 나는 마침 이곳 중·고등학생들에게 에세이 작성과 문법을 지도하고 있었다. 한국 학생들이 에세이 쓰는 데 특히 약하기 때문에 나는 이들의 장단점을 고려한 에세이 작성 교재를 만들었고, 이 교재로 강의한 후 학생들이 쓴 에세이를 함께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나는 반 편성 시 학년보다는 실력을 우선시했다. 그리고 나는 수경이가 가장 우수한 고학년 그룹에서 공부하도록 했다. 대체로 수경이보다 한두 학년 높은 학생들과 함께한 것이다. 이걸 수경이에게 무척 좋은 기회였다. 경쟁심 강한 수경이는 에세이 분석에서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다. 이런 식으로 1년 이상 공부하다 보니 수경이의 에세이 작성 실력은 학교 친구들 모두가 인정하는 수준이 되었다.

수경이는 고등학교 졸업반(12학년) 영어 학년말 고사에서 학기 중에 공부했던 작품들(셰익스피어의 <햄릿>, 장편 소설과 각종 단편 소설들, 그리고 시)과 연관시켜 '배신(Betrayal)'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다. 한 시간 30분 내에 세 쪽 이상의 글을 써야 했는데, 다섯 쪽을 써서 97점을 받았다.



이중언어 구사자(Bilingual)로서의 정체성 고민과 노력

나는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이민 1.5세 및 이곳에서 태어난 2세 중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를 겪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다. 성장기에 있는 십 대의 정체성 형성에 부모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도 과정보다는 결과를, 인성보다는 성적을 중시하거나, 권위주의와 경직된 사고, 가족 이기주의, 배금주의를 유지한 채 캐나다 문화를 배우려는 부모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서구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다. 어느 문화건 장단점이 있다. 한국 문화에는 따뜻한 정과 인간미, 윗사람에 대한 예의, 근면함,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등 서구인들이 흉내 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정서와 문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문화와 서구 문화의 장점을 살려서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모가 두 개의 상이한 문화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할 때, 감수성이 예민한 십 대 자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문화적 고아'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곳에 이민 와서도 부모가 영어나 현지 문화를 배우려는 노력 없이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만 생활하면, 아이들도 학교에서 주로 한국인 친구들과만 지내서 결과적으로는 이곳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곁들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대로 자녀들이 하루라도 빨리 영어를 습득했으면 하는 바람에 한국 문화나 한국 친구들을 접하지 못하게 하다가, 아이가 우리말 구사력을 잃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뜸해지면서 사이가 멀어지는 상황도 적지 않다. 양쪽 상황 모두 진정한 한국인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캐나다인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나는 캐나다에 도착해 수경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수경이의 정체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했다. 영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은 물론 어휘력 등에서 우리말도 완벽히 구사하

는 이중언어 구사자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수경이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해도 뿌리는 한국인임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대화했다. 현재 수경이는 캐나다에서 20년 이상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우리말을 구사한다. 물론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만 생활한 사람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냥 한국에서 사는 사람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언어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한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보다 사고력과 창의력, 상상력, 표현력 등에서 우수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 영역이 넓다고 한다. 하지만 이중언어 구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언어는 생활에 녹아들기 때문에, 이미 두 가지 언어를 습득했다고 해도 항상 두 가지 언어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생활해야 지속적인 이중언어 구사자가 될 수 있다.

한동안 한 언어에 소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언어 구사가 어색해지기 십상이다. 영어만 지속적으로 쓰다 보면 예전에 알았던 쉬운 한국어 단어나 표현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고, 주로 우리말을 사용하며 생활하다 보면 영어로 문장 구사하기가 어색해지기도 한다. 또한 영어를 구사하는 도중 자신도 모르게 한국식 억양이 튀어나온다거나, 우리말을 할 때 혀를 굴려 발음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서로 상이한 언어 체계 사이에서 혼동을 겪기도 쉽다. 우리말로는 아주 딱 맞는 표현이 있는데 영어에는 없다거나 영어에는 존재하지만 우리말에는 없는 말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자칫하면 '콩글리시'를 구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번역체 느낌이 나는 우리말을 하게 될 때도 있다.

이중언어 구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 언어 체계를 모두 받아들이는 동시에, 양쪽 언어 체계를 확실히 분리시켜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두 가지 언어를 습득하고 두 가지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차이로 발생하는 혼란을 겪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을 마치며

수경이의 초중고교 시절, 어린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며 힘들게 하지는 않았나 하는 우려가 항상 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고맙게도 수경이는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들을 불평 없이 잘 따라 주었다.

덕분에 수경이는 영어 학습에서 논리적, 분석적, 창의적 사고력 및 훌륭한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으며, 언어 실력에서 고급 어휘 구사력이나 유창함보다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며 진정한 이중언어 구사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말과 영어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했고, 지금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 아이를 이중언어 구사자로 키우고 있는 부모나 이중언어 구사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에게 우리 가족의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69**